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습니다.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fighter jet, possibly a KAI T-50, flying through a sky filled with wispy, white clouds. The jet is shown from a side-on perspective, angled upwards. Below the jet, there's a detailed landscape featuring rolling hills, a small town with traditional buildings, and a range of snow-capped mountains in the distance.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warm, with earthy tones for the land and cool blues and whites for the sky and clouds.

# Fly Together

2017 OCTOBER Vol.214

www.koreaero.com



Monthly Issue

LCH 시제 1호기  
전방·중앙동체 Mating 척수 행사  
생각의 폭을,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다

사회공헌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 GWP Idea 10 Reward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아이디어,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루어는 열망이 합쳐지면 미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비도 더불어 이뤄질 것입니다.

## 가장 빛나는 시간을 향해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

긴 계절을 버텨낸 곡식과 과일이  
맑디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이제야 제 색을 내며  
한없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을 견뎌  
가장 화려하고 값진 모습으로  
당당히 나서는 순간이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가끔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이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가장 어두운 밤의 터널을 지나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가녀린 가지 하나 붙잡고  
비바람을 이겨내며 열매를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도 고개를 넘고 터널을 지나  
이제 우리 손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3년, 인도네시아를 향해  
힘차게 웅비했던 T-50의 위용처럼  
우리의 내일도 더 밝고 더 찬란하게  
빛날 거라 믿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값진 위로를 건네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니까요.



표지 일러스트 정대웅

# Contents

www.koreaaero.com  
OCTOBER 2017 / Vol. 214



웹진 (Fly Together)  
QR코드



더 강한 KAI

**04**

**04 Monthly Issue**  
LCH 시제 1호기 전방 · 중앙동체  
Mating 척수 행사

**05 News Focus**  
제주소방헬기 1호기 초도비행 성공 외

**10 KAI 히스토리**  
국산 기동헬기 시대가 열리다

**14 KAI 특집**  
Part 3 – 동종업계 사업 전략 및 기업문화①  
기술 진보와 선제적 위기조정으로  
역경을 극복한 보잉

**20 역사 속 항공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낳은  
천재 설계가 쿠르트 탕크

**22 Fly News**  
일본 훈다 제트기.  
을 상반기 출하 세계 1위 등극 외



하나 된 KAI

**26**



행복한 KAI

**34**

**34 사회공헌**  
생각의 폭을,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다

**38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스트레스가 뭔가요?  
일상이 흥겨움으로 가득해진다

**40 나의 여행 이야기**  
자유로움이 살아 숨 쉬는  
바르셀로나

**44 세대공감 KAI**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시간

**48 문화광장**  
문화를 즐기며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

발행일 2017년 10월 10일(통권 214호 · 10월호 · 비매품)  
발행인 장성섭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대로 78  
담당자 배화윤 차장(055-851-9485)  
제작대행 디지인신화(02-324-6852)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접두윤리강령 및 접두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일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 Monthly Issue



### LCH 시제 1호기 전방·중앙동체 Mating 착수 행사



9월 11일 에어버스헬리콥터의 본사인 프랑스 마리냥에서 LCH 시제 1호기 전방·중앙동체 Mating 착수 행사가 열렸다. 전방동체는 에어버스헬리콥터의 설계 기준에 따라 우리 회사가 설계하고 제작한 최초의 기체구조물로, 지난 7월 25일에 에어버스헬리콥터에 공급했다. 에어버스헬리콥터는 우리 회사의 전방동체를 인수한 후 자체 제작한 중앙동체와 고정(Fit-up) 상태 확인을 수행하고 행사 당일 Mating에 본격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2006년부터 두 회사는 수리온사업으로 군수 부분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두 회사가 민수 부문 협력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12월 초 최종조립 착수를 목표로 한 후속 조립공정은 현지 파견한 우리 회사의 생산·품질 인력과 에어버스헬리콥터 인력이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News Focus



### 제주소방헬기 1호기 초도비행 성공

9월 11일 수리온의 5번째 파생형헬기인 제주소방헬기 1호기가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 헬기는 2015년 12월 30일에 제주소방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생산한 헬기다. 제주소방헬기는 응급 환자 후송 시 적절한 의료 지원이 가능한 EMS KIT,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실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다양한 의료 장비를 장착했다. 특히 EMS KIT는 탈착이 쉬우며, 다양한 환자 수송 임무에 최적화해 제작했다. 약 2톤의 물을 실을 수 있는 물탱크, 효율적인 화재 진화를 위한 Water & Foam 혼용, 장·탈착 시간의 최소화 등을 통해 임무에 따라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 국립서울현충원 자매결연 묘역 봉사활동

9월 13일 건국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사무소 국내사업본부의 노동우 상무 외 2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국립서울현충원 45 묘역의 조화를 새것으로 교체해 현화하고 주변 정화도 했다. 이는 서울사무소 국내사업본부가 2014년 3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과 6·25전사가 안장된 45 묘역 845기에 대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해온 묘역 가꾸기의 일환이다. 이번 묘역 현화 및 정화 활동을 계기로 회사 경영의 조기 안정화와 APT사업의 수출 성공을 바탕으로 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반기 경영 목표를 달성하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 엠브레이어 E2 스트링거 초도 출하 행사

9월 15일 산청공장에서 엠브레이어(Embraer) E2 스트링거(Stringer) 초도 출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관련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적기 납기를 위한 개발 노고를 상호 격려했다. 출하하는 E2 스트링거는 포르투갈 조립 라인에 투입되며 2033년까지 총 1,364대를 납품할 예정이다.



### 경상남도 소방훈련 경진대회 수상

9월 19일 인천환경팀 김문섭 부장 외 7명이 경상남도 주요 업무 시책인 경상남도 소방훈련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다. 도내 18개 팀, 100여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경진대회는 소방 시설 자체 점검 능력 향상과 사내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열렸다. 의령군 경상남도소방교육훈련장에서 진행한 이 대회는 소방 작동기능점검, 소방 훈련,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종목에서 각 회사의 화재에 대한 소방 능력을 확인했다. 또한 소방 능력 향상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자리였다.

## 우리의 긍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역사는 우리의 긍지입니다



## 9월 KAI 사회공헌활동

나눔봉사단 / 에비에이션 캠프



### 제2회 사천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수상

9월 5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해 사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사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나눔봉사단이 단체상과 개인상을 받았다. 나눔봉사단은 경남사회복지협회장 단체상을 받았으며 재능분과장 하영관 수석이 재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상은 나눔봉사단 창단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역 관내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해서 펼친 노력을 인정해 사천 시민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앞으로도 나눔봉사단은 소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만들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 임직원 아나바다 의류 물품 후원

9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봉사단이 경남 지역 가정 폭력 피해 여성·아동 쉼터인 내일을 여는 집에 의류 물품을 후원했다. 기증한 의류는 상반기 아나바다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이 기증해준 여성 의류, 아동 의류, 신발, 모자 등 1,000여 점이다. 내일을 여는 집 원장은 "가정 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여성과 아동들에게 의류 기증을 해줘서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 사천유형문화재 환경 정화 봉사활동

9월 13일 기체생산1팀2직이 사천을 구암리의 사천유형문화재인 구계서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기체생산1팀2직은 구계서원의 내부와 외부의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를 했다. 구계서원은 조선 명종 때의 학자인 구임 이정(1512~1571년)을 기리기 위해 선조 39년인 1606년에 세워진 서원이다. 사천유형문화재는 구계서원, 사천읍성, 선진리성, 사천향교, 단종·세종 태실지로 나눔봉사단은 정기적인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통해 사천의 유형문화재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



### 에비에이션 캠프 소식

9월에는 경남중학교, 남해여자중학교, 봉담고등학교, 사천여자중학교,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길원여자고등학교, 철성중학교, 서창중학교, 창평고등학교, 경운중학교, 구산중학교, 상우고등학교 학생들이 에비에이션 캠프를 방문했다. 이들은 항공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도 했다. 길원여자고등학교 장혜원 학생은 "나만의 비행기를 만들어보자는 수업에서 텁커캐드(TinkerCad)를 사용해 비행기를 설계하고 3D프린터로 프린트해보았습니다. 직접 만든 비행기가 3D프린트로 만들어지는 게 흥미롭고 신기했습니다"라고 체험 후기를 전했다.

## 우리의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밝힐 촛불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신뢰와 단결로 지켜냅시다



10  
KAI 히스토리  
국산 기동헬기 시대가 열리다



14  
KAI 특집  
Part 3 동종업계 사업 전략  
및 기업문화①  
기술 진보와 산재적 위기조정으로  
역경을 극복한 보잉



20  
역사 속 항공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낳은  
천재 설계가  
쿠르트 탕크



22  
Fly News  
일본 혼다 제트기,  
을 상반기 출하 세계 1위 등극 외

## Section 1 더 강한 KAI

찬란한 역사가 있기에  
내일의 태양이 더 밝게 떠오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KAI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알래스카에서 수리온에 대한 저온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2013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대한민국이 개발해낸 첫 기동헬기 수리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여러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해이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인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견인차다.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와 연구, 실패와 도전을 거듭해야 하는 분야다. 수리온과 나로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서승범

## 국산 기동헬기 시대가 열리다

### 연재 순서

- ① 2000년 \_ KAI 새롭게 비상하다
- ② 2001년 \_ 세계를 향한 희망의 발견
- ③ 2002년 \_ 지부심의 기억 그리고 희망
- ④ 2003년~2004년 \_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의 태동
- ⑤ 2005년~2006년 \_ 대한민국 공군력에 날개를 달다
- ⑥ 2007년~2009년 \_ KAI 세계를 훑다
- ⑦ 2010년 \_ 수리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다
- ⑧ 2011년 \_ 도약의 시기, 비상하는 KAI
- ⑨ 2012년 \_ 항공우주산업을 이끈다
- ⑩ 2013년 \_ 수리온 시대의 개막
- ⑪ 2014년 \_ 새로운 기회, 페루를 만나다
- ⑫ 2015년~2016년 \_ 희망의 결실, 또 다른 시작

### 우주로 쏘아올린 꿈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2002년에 나로호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만 10년 만의 쾌거였고, 두 번의 발사 실패와 10여 차례의 발사 연기 등으로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나로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하는 당당히 우주선진국으로는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등극하며 스페й스 클럽 회원국이 되었다.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듯,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기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에서 이룬 성과는 항후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더욱이 항공우주기술은 군사기술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방위산업과 연계해서 항공우주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항공우주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충분한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산업은 분야별로 진도 차이가 크다. 특히 위성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지만 발사체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항공 분야는 KAI가 산업체 주관으로 항공기를 개발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비행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KAI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직원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를테면 수리온 알래스카 저온시험팀이 영하 40°C가 넘는 혹한에서 121개의 시험 항목을 붙잡고 씨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다.

### KAI 도약의 승부처 수리온

“센트럴 지역은 워낙 오지라 현지인들도 접근하기를 꺼리는 지역이었어요. 이동도 쉽지 않고 통신도 어려워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저희 팀 내부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죠. 세 번에 걸쳐 오가면 결국 테스트를 무사히 끌마칠 수 있었어요.”



알래스카에서의 저온 시험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진행한 도전이었다.

수리온의 알래스카 저온시험에 참가했던 안인철 부장(당시 회전익비행시험팀)의 회고다. 수리온은 6년이 넘는 개발 기간과 7,000시간이 넘는 시험비행을 마쳤다. 저온시험 역시 국내 챔버와 영하 23°C의 강원도 양구에서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영하 32°C의 저온 시험 비행에 도전하기로 했다. 2011년 말 이야기다. 1년이 지난 2012년의 크리스마스이브,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공항에 수리온이 화물수송기 안토노프에 실려 도착했다. 하지만 최저 영하 60°C 달한다던 페어뱅크스의 날씨는 영하 15~23°C에 머무르며 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페어뱅크스에서 북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센트럴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온뿐 아니라 눈과 안개 등 기상 상황은 열악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기온이 뚝 떨어진 페어뱅크스로 돌아와 121개에 달하는 시험 항목을 테스트하고 2013년 2월 성공리에 복귀했다. 알래스카에서 행한 수리온 저온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전한 해외 저온 시험비행이었고, 참가자들은 “최고의 엔지니어, 조종사, 매니저들이 만든 한 편의 드라마”라 불렀다.

KUH-1, KUH는 Korea Utility Helicopter를 가리킨다. 한국형기동헬기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0.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항공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GDP와 국방예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항공산업의 바탕이 되는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준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는 항공우주산업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져가고 있다. KUH-1 수리온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소중한 결과물이자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다.

KAI는 수리온을 기본으로 군용과 민수용 헬리콥터 버전을 개발해 확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수리온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이다. 경찰청 헬기와 소방헬기, 의무후송 전용 헬기, 상륙기동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다양한 진화가 가능



**나로호 발사**  
1월 30일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가 발사되었다. 200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거둔 쾌거였다.

**수리온 개발 완료**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3월 28일 방위사업청의 국방규격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 개발 국가가 되었다.

### 수리온 저온 비행시험 성공

영하 40°C 환경에서 12시간 이상 노출한 후 운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하다. 이하 7월 1일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제작 개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함정 및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운용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 수리온과 FA-50은 실전으로, KAI는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2013년 5월 22일 육군항공학교에서 수리온 전력화 행사가 열렸다. 육군이 사용하던 UH-1과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수리온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수리온은 나아가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로 소형무장헬기(LAH)와 소형민수헬기(LCH)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형무장헬기는 2016년 6월 개발사업을 본격 시작해 2017년 8월 기본설계 검토를 완료했으며 시제 1호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소형민수헬기는 2016년 시제 1호기 제작을 시작했고 2017년 초 시제 2호기를 제작하고 있다. 체계 개발 원료는 소형무장헬기 2022년, 소형민수헬기 2021년이 목표다. 이처럼 수리온은 단순히 국내에서 개발한 첫 기동형 헬기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소중한 결과물이자 도약의 발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수리온의 소식에 가려졌지만, 2012년 8월 20일 공격기 FA-50 또한 군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공격기 FA-50은 개발 3년 만인 2011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12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생산을 시작해 2013년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했다. 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버전인 T-50i도 인도네시아에 수출의 물꼬를 뒀다. 페리비행으로 수출한 T-50i는 9월 1차로 2대가 날아갔고 8회에 걸쳐 16대를 수출했다.

오랜 시간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덕에 KAI는 보잉과 에어버스 등 유수의 항공 기업체와의 부품 수출 계약도 꾸준히 이어졌다. 3월에는 에어버스와 A321 동체구조물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와 4,600억 원 규모의 A321 동체구조물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체구조물을 2025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4,6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다. 4월에는 보잉과 B737 꼬리날개구조물, B777 주날개와 조종면 연결 기체구조물, B787 후방동체 내부구조물을 2024년까지 공급하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굵직한 계약도 체결했다. KAI는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을 넘어 이들의 핵심 파트너로서 차세대 민항기 에어버스 A-350, 보잉 B-787의 국제공동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 기체 구조물의 설계부터 제작, 공급까지 수행하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기체 구조물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FA-50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상

2013년은 시작이 활기차고 좋았을 뿐 아니라 마무리도 좋았다. 다양한 수상 소식과 함께 마무리되었기 때문인데, 우선 대한민국기술대상 금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기술대상' 금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기술대상은 국내 기술로 개발·상용화된 기술 부문 중 성과가 뛰어나고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 분야 시상이다. KAI는 수리온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 및 기술 축적 등 국내 헬기 개발 역량을 확보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며칠 뒤인 11월 27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3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장을 받았다. 이 표장은 IT 개발·보급과 융합에 공이 큰 기업·단체 및 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KAI는 항공산업과 IT를 융합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알다시피 KAI는 첨단 항공전자 장비, 항

공 시스템, 항공기 훈련체계, 후속지원종합상황실 등 항공기술에 IT를 접목한 세계적 수준의 항공 IT융합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임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된 연말이었다.

또한 KAI의 이야기를 담은 사보 〈Fly Together〉가 2년 연속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받았다. 세밀에 열린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KAI는 한국PR협회장상을 차지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 및 기업과 기관, 단체가 발행하는 2,400여 종의 홍보물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 분야의 유일한 상이다.

2013년은 다사다난했다. 최선을 다해 뛰었고 모든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실패도 있었고, 실패가 거듭되기도 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크고 작은 성공과 성과가 이어졌다. 이것이 KAI가 일하는 방식이고 나아가는 방식이다.



2013년은 다양한 수상으로 KAI의 저력을 보여준 해다.

\*본 칼럼에 소개된 내용은 2013년 사보 〈Fly Together〉에서 발췌했습니다.

#### 보잉과 1조2,0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

4월 22일 세계적인 항공기업 보잉과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B737 꼬리날개구조물 외 기체 주요 부품을 2024년까지 공급하게 되었다.

#### 파리에어쇼 참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파리에어쇼에 참가해 FA-50, T-50, 수리온 등을 전시했다.

4월

5월

6월

7월

#### FA-50 납품 시작, 공격기 생산국 진입

8월 20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으로 공격기 FA-50 개발을 완료하고 우리 군에 납품을 시작했다. 공격기 생산국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 서울ADEX

10월 25일부터 열흘 동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ADEX가 열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청주에서는 에어쇼가 열렸다.

#### 이라크와 T-50iQ 수출 계약 체결

12월 12일 훈련기 겸 경공격기 T-50iQ 수출 계약을 이라크와 체결했다. 이 외에도 수리온 경찰청 헬기 초도 납품을 했다.

#### 수리온 전력화 행사

수리온 실전 배치를 기념하는 행사가 5월 22일 충청남도 논산의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렸다.

####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개발 착수

7월 1일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체계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헬기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함정 및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운용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한다.

#### T-50i, 인도네시아 수출 시작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i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9월 10일 1차 페리비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 에어버스 A320 날개하부구조물

생산 공장 가동  
11월 7일 에어버스 A320 날개하부구조물 생산을 위한 전용공장인 산천공장의 준공식을 열었다.

## 기술 진보와 선제적 위기조정으로 역경을 극복한 보잉

보잉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자랑하며,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혁신 기업 리스트에 꾸준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항공우주 이노베이션을 통해 세상을 연결시키고(Connect), 보호하고(Protect), 탐구하고(Explore), 영감을 불러일으킨다(Inspire)는 비전 아래 자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항공업계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잉은 2017년 현재 미국을 포함한 65여 개국에서 14만5,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글로벌 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글 강석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Fly Together〉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KAI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기업의 스토리를 통해 KAI가 나이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연재 순서

#### Part 1 新 가치체계 정립 위기관리 시리즈

- ① KAI 중장기 비전 4.0과 新 가치체계
- ② 위기관리 경영에 성공/실패한 기업사례(기술 집약 부문) I
- ③ 위기관리 경영에 성공/실패한 기업사례(마인드의식 부문) II

#### Part 2 신세대 시너지 제고 시리즈

- ① 기업사례 I – 젊은 직원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다
- ② 기업사례 II – 신구 세대가 성공적으로 융합한 기업
- ③ 기업사례 III – 책임감과 오너십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한다

#### Part 3 동종업계 사업 전략 및 기업문화

- ① 항공우주산업 세계 1위 보잉
- ② 항공우주산업 세계 2위 에어버스
- ③ 항공우주산업 세계 3위 롤리드마틴

### 항공 분야 리더십과 혁신의 문화

보잉은 항공 분야 리더로서 혁신의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보잉의 문화는 창업자인 윌리엄 E. 빌 보잉(William E. Bill Boeing)의 창업 정신과 회사의 강한 정신적 유산을 지니고 있다. 1916년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은 1956년 사망할 때까지 '도전과 혁신의 DNA'를 조직 구성원과 나누고자 했으며 자신의 철학이 문화로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창사 100주년이 넘어선 현재 창업자의 바람대로 보잉사는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정착되어 보인다. 보잉은 "우리는 새로운 과학과 산업의 선구자로서 한배를 탔다. 우리가 가진 숙제는 늘 새롭고 흔하지 않아 누구도 확신에 찬 우리의 창신한 생각을 현실이 될 수 없다고 묵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보잉은 100여 년의 역사에서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보잉의 놀라운 성장과 생존 비결은 인재와 혁신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창업주인 보잉이 강조한 것도 열정을 지닌 인재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도전적 마인드, 혁신을 통한 발전이었다. 젊은 시절 보잉은 MIT 과학도였고, 비행기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다. 비록 남들보다 늦게 비행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열정을 지닌 인재들을 모으는 힘이 있었고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혁신적 열정이 있었다. 그 결과 1916년 보잉의 전신인 비행기 제조사 PAPC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쇠를 이용한 비행기 제작에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비행기 제작 5년 뒤 여객 및 화물 및 운송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보잉은 비행기 제조회사, 항공사, 엔지니어링 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미국 내에서 사업 독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보잉은 정부가 규제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계



윌리엄 E. 빌 보잉



B787.

© Shutterstock.com

열사를 매각한다. 그리고 재산을 대학과 연구기관에 기부하고 자신의 일가와 함께 경영에 서 완전히 물러난다. 부의 축적이나 명성이 아닌 비행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항공 관련 기업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윌리엄 보잉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위기 때마다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대전으로 항공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비행기 제조업의 수주는 급감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보잉은 과감하게 대형 기종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한다. 제트 엔진을 개발, 발전시켜 실용화하는 성과를 거두어 낸 것이다. 당시 위험성 때문에 제트 항공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보잉은 상업용 제트기 개발에 성공하고,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열정 덕분에 보잉사뿐 아니라 뒤걸음치던 항공산업 역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과 점보 제트기 판매 감소로 인해 큰 시련을 맞이했다. 보잉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기술과 혁신에 매진했으며 그 결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고 속도를 높인 B737, B757을 개발해 역경을 극복한다.

20세기 말 다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한 것도 기술 혁신에 대한 보잉사의 강한 문화가 뒷받침되었다. 맥도넬더글拉斯와의 인수 합병을 통해 회사가 팽창했지만,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비행과정에서 신기증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부닥쳤다. 그럼에도 보잉은 항공기 동체를 알루미늄 대신 탄소섬유로 대체해 기체를 가볍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새로 선보

## 보잉의 역사

\*보잉 홈페이지 역사 참고.

1910

- 1916 보잉 전신, PAPC(Pacific Aero Products Company) 창업. 첫 비행기 B&W 개발.
- 1917 보잉항공사(Boeing Airplane Company)로 사명 교체.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비행기 50대 제작 주문받음.
- 1918 순찰 비행선 HS-2L, 제1차 세계대전 종전.
- 1919 우편 배송용 C-700 개발. 우편물 수용하는 B-1(Model-6) 첫 비행.

1920

- 1920 BB-1 수상 비행기 첫 비행.
- 1923 PW-9 전투기 개발.
- 1925 우편기 Model 40 제작.
- 1927 보잉 항공 운송(Boeing Air Transport) 설립. 어뢰 폭격기 T2D-1 첫 비행.
- 1928 12인승 여객기 Model-80 개발.
- 1929 전투기 P-12·Model 40B-4 첫 비행.

1930

- 1933 최초의 현대식 여객기 Model-247 개발.
- 1934 장거리 실험 폭격기 XB-15 개발.
- 1938 B314 Clipper 첫 비행.
- 1939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0

- 1940 B-29 등 폭격기, 미사일 제작.
- 1944 장거리 해군 전투기 보잉 XF8B-1 첫 비행.
- 1945 B-29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
- 1946 첫 번째 생산 모델 보잉 Stratofreighter 출시.
- 1947 B377 Stratocruiser 첫 비행.

1950

- 1952 제트 엔진 개발.
- 1957 B707 비행 시작.
- 1958 B707 제트기 최초 납품. 제트 엔진을 보유한 첫 DC 라인인 Douglas DC-8 초도비행.
- 1959 북미의 X-15-1 극초음속 연구용 항공기 최초의 무인 시험비행.



© Shutterstock.com

**설립연도 :** 1916년 7월  
**설립자 :** 윌리엄 E. 빌 보잉  
**매출액 :** 총 946억 달러(2016년)  
**본사 :**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주요 생산품 :** 민간항공기, 군용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전자 및 방위 시스템, 미사일, 위성, 발사체 첨단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

◀ 1909년 지어져 보잉 공장으로 사용된 건물.  
현재는 항공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B77.



B737.

© Shutterstock.com

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있겠지만, 보잉의 문화에는 남편을 전장으로 보낸 여성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표어 아래 비행기 조립에 온 힘을 기울인 미국 역사의 유산이 깊이 내재하고 있다.

#### 미래의 100년을 바라보는 보잉

보잉은 글로벌하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보호한다(Connect and Protect People Globally)는 미션 아래 앞으로 도전할 미래의 100년 모습과 할 일을 그려보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고객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보잉은 생산 라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확장하고 있다. 복잡한 산업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을 크게 넷으로 개편했다. 2017년 현재 보잉은 상용용 비행기(Commercial Airplanes), 안보, 우주 및 안전(Defense, Space & Security), 보잉글로벌 서비스(Boeing Global Service), 보잉 캐피털사(Boeing Capital Corporation)의 네 비즈니스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자사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다. 2017년 보잉이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략은 크게 세로 구분 지어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보잉으로 일하기(Operate as one Boeing), 강점에 기반을 둔 강화(Build strength on Strength), 승리를 위한 정교화와 가속(Sharpen and Accelerate to Win)이 바로 그 전략이다.

보잉에서 승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정교함을 추구하는 것은 핵심 전략이다. 2025 목표에도 이노베이션 가속(Accelerated Innovation)이 포함되어 있다. B787 드림라이너를 제작하면서 보잉은 과감하게 항공기 디자인과 생산을 일본, 이탈리아 등의 협력사에 위탁했다. 보잉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부품 공급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제작 프로세스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추구하였다. 고귀한 목적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정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으며, 보잉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략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수많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하나의 보잉으로 일하는 전략 또한 21세기 사람들을 연결하고 보호하겠다는 기업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다양한 외부 협력사의 협력과 조화 없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로 일하기 전략은 보잉이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로 선정한 신뢰와 존중(Trust & Respect),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과 잘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기업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팀이 지닌 기술과 강점을 소중히 여기면서 협업을 통해 성과를 추구한다. 보잉은 앞에서 언급한 네 개의 비즈니스 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해 혁신을 이루어낼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보잉은 고객 지식 세부화 및 집중, 대규모 시스템 통합, 전시적 자원의 활용을 자사의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작 방식의 표준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전시적 자원 활용을 통한 유연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가치 창출과 미션 완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사와 비교하면 아웃소싱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하나의 보잉으로 일하는 협업, 정교화의 필요성, 시스템 통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는 21세기 항공을 열어가기 위해 보잉이 선택한 전략이다.



####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꿈의 항공이라 불리며 세계인의 관심이 쏠렸던 B787 글로벌 생산 시스템 사례가 보여주듯이 혁신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수반되기에 심상이다. 보잉은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인 시스템 설계 통합에 집중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생산 원가와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각 부품의 글로벌 생산 체계를 실제로 운영하자 각 부품을 세밀하게 재검토하고 승인하는 문제, 상대방과 일정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문제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국 항공기 제작은 수년간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잉은 수조 원의 손실을 경험한다. 이렇듯 자사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수익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고단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초일류 기업은 위대한 목표와 그 비전을 달성하고자 헌신하는 직원들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구성원의 내부에 면면히 흐르는 문화적 DNA,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과 기업에 적절하게 조화되는 전략이 덧붙여져야 가능한 것이다. 세상을 연결하고 보호하겠다는 강한 사명감 아래 보잉은 도전과 혁신의 DNA, 치밀하고 적절한 전략으로 21세기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960~ 헬리콥터 제작사 버틀(Vertol) 인수·합병해 헬리콥터 개발(CH-46, CH-47, V-22). 화성 탐사선 발사. 버틀에서 CH-46 Sea Knight 생산. 보잉 최초 제작 인공위성 발사. 중거리 항공기 B737 첫 비행. 아폴로 유인 우주선 달 착륙, 점보 여객기 B747 첫 출고, 에버렛 공장 건설.	1970 B747 첫 상용 비행. F15 전투기 첫 비행. 보잉 제작 Mariner 1001 금성·수성 활영 위해 비행 개시. 수중양선 B929-100 개발. AH-64 아파치 프로토 타입 헬기 첫 비행.	1983 B-757, B-767 생산. 최초의 보잉 767-300ER 아메리칸 항공에 인도. 미국 육군에 Avenger 방공 시스템 최초 납품. 보잉 V-22 Osprey tiltrotor 항공기 첫 비행. 노스롭과 협업한 B-2 스텔스 폭격기 첫 비행.	1994 트윈 엔진 적용한 B777 제작. B767 화물기 첫 비행. 항공우주 & 방위 부분 로크웰(Rockwell) 인수. 미국의 대표적 군수업체 맥도넬더글러스 (McDonnell Douglas Corp.)와 합병,	2002 우리나라가 보잉 F-15K를 F-X 전투기로 선택. 한국 공군을 위해 F-15K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출시, A160 Hummingbird 무인 헬리콥터 첫 시험비행. 보잉 F-22 랩터 첫 비행해 3분 안에 1만5,000피트 고도 도달.	2011 B737 MAX 공개. 중형 규모의 해상 감시 항공기 제공 발표. 보잉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B737 MAX 7의 출시 발표. 경량 헬리콥터 AH-6i 첫 비행. 보잉 설립 100주년, 워싱턴 주에 27억5,000만 달러 규모 공장 설립.



##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낳은 천재 설계가 쿠르트 탱크

(1898. 2. 24. ~ 1983. 6. 5.)

이번 달 '역사 속 항공人'의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지배했던 Fw 190을 개발하고 종전 후에는 아시아 최초의 초음속 제트기 HF-24를 설계한 독일의 천재 엔지니어 쿠르트 탱크(Kurt Waldemar Tank)입니다.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Q. 천재 설계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셨지만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더 큰 귀감이 되는 듯합니다.**

A. 천재라는 칭찬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한 노력형 천재였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천재로 애기가 돌아가긴 하는군요(웃음). 제가 살던 시대는 항공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던 시기였죠. 비행기가 처음 등장했고,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제트기가 등장했고, 제트기들은 한없

이 빨리, 그리고 높이 날았습니다. 항공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제 인생을 관통했지요. 제가 살던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결국 기술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요.

**Q. 말씀하신 것처럼 탱크 씨가 걸어온 길은 항공 역사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A. 대학 졸업 후에 비행정을 만들던 로어바흐(Rohrbach)에서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1933년부터 포케불프(Focke-Wulf)로 이직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했지요. 이후

복엽 스포츠 항공기 Fw 44를 만들었고, 복엽기가 주류를 이루던 1933년에는 저의 첫 단엽기인 Fw 56을 개발했습니다. 1937년에는 4발 여객기 Fw 200을 개발하는 소중한 경험도 쌓았어요.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1930년대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기적·재정적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후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Fw 190과 Ta 152가 탄생할 수 있었죠. 종전 뒤에는 아르헨티나와 인도로 옮겨가 제트기를 개발했습니다. 돌아켜보면 복엽기부터 제트기까지 항공 설계가가 개발해볼 수 있는 항공기는 다 만들어 본 셈이지요.

**Q. 탱크 씨의 천재성과 노력이 시대적 요구와 조합된 결과물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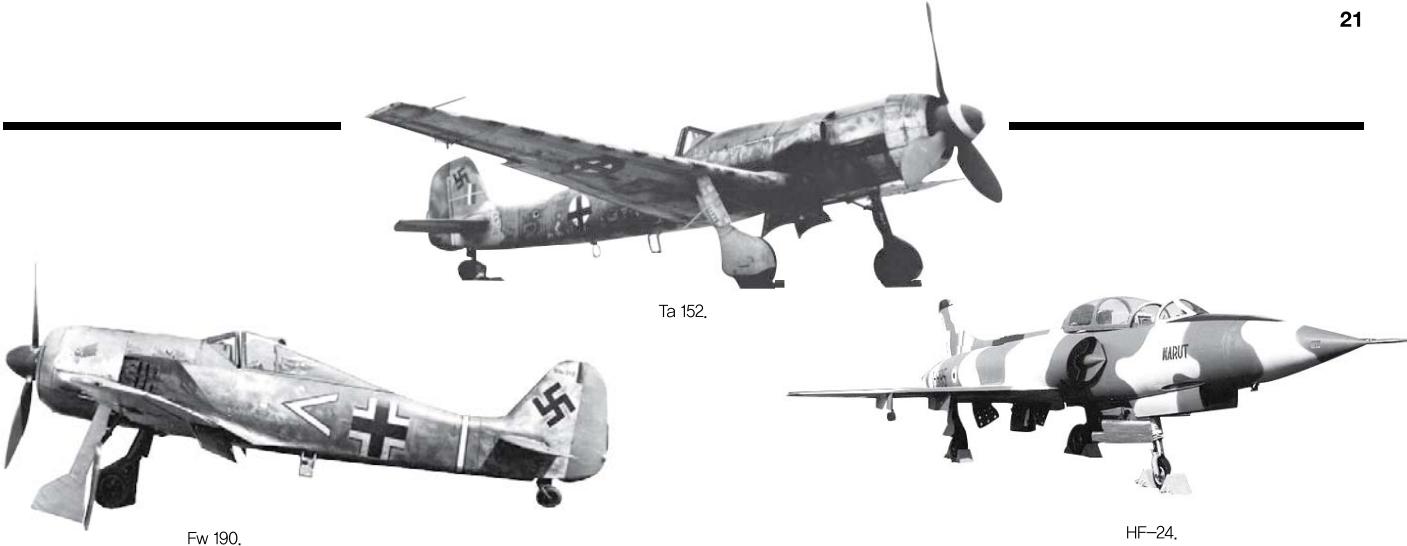
A. 혹자는 제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보죠. 저와 동시대를 산 많은 항공 공학자가 있고, 그들의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시제기로 끝났던 항공기가 부지기수였고, 시제기조차 못 만들고 설계 도면에서 사라진 항공기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도전 자체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항공기를 개발해 빛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수없이 시도했던 도전을 끝내 성공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죠.

**Q. 탱크 씨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좋은 예가 4발 대형기 Fw 200을 개발한 일입니다. 포케불프에 들어가서 처음 설계한 복엽 스포츠 항공기인 Fw 44는 1934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 이 항공기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회사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하틀러가 집권한 이후 항공기들은 군용 목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했고, 고등훈련기로 쓸 수 있는 Fw 56을 개발했습니다. Fw 56 역시 루프트바페<sup>1)</sup>에서 1,000 대 가까이 도입해 운용했죠. 하지만 성공가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루프트바페가 전쟁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고성능 주력 전투기 개발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회사 명운이 달린 중요한, 그리고 엄청난 물량이 생산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었죠. 저는 Fw 56을 기반으로 한 Fw 159로 도전했지만 루프트바페의 선택을 받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리자 생존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용기로 눈을 돌렸는데, 당시 한창 성장하던 대형 여객기 시장을 본 것이죠. 기껏해야 훈련기나 만들던 포케불프의 4발 대형 여객기 개발은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새 여객기를 구매해줄 루프트한자를 열심히 설득하는 한편 Fw 200의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전장 23m, 최대 이륙중량 25톤에 달했던 대형기 개발은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7년 첫 비행을 성공시켰어요.

전쟁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루프트바



페는 Fw 200을 재빨리 수송기와 정찰기 등으로 운용했습니다. 생산 대수는 300대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비행 성능이 안정적이어서 하틀러가 전용기로 쓸 정도였으니, 기술적으로는 성공한 항공기였어요. 무엇보다 Fw 190을 개발하기 전까지 포케불프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죠.

**Q.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하늘을 지배했던 Fw 190 개발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A. 루프트바페는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주력 전투기로 메서슈미트 Bf 109를 생산 및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이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면서 Bf 109만으로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수뇌부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Bf 109 전력을 뒷받침할 새로운 전투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루프트바페의 전투기사업에서 떨어진 뒤 Fw 200을 통해 절차부심하고 있던 때였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었죠.

그래서 당시 주류였던 수랭식 엔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랭식 엔진을 장착한 Fw 190을 개발했습니다. 공랭식 전투기는 공기로 엔진의 열을 식혀야 하므로 기수 부분이 투박해져 항력이 커지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카울링이 커져 조종사의 시야가 나빠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종석을 엔진 으로부터 더 멀리 배치해 시야를 확보하고, 공기 역학적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주익과 수평미의의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엔진과 조종석 사이에 무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늘어난 익면적으로 비행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939년 6월 1일 첫 비행을 통해 Fw 190의 훌륭한 비행 성능과 무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Fw 190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Fw 190은 제 기대에 부응했어요. 1941년 중반 영불해협 상공에서 실전 대비전을 치른 이후 각종 공중전에서 대단한 전과를 올렸지요. 후대에 Fw 190을 평가할 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기로서의 Fw 190의 위용은 영국 공군을 경악시킨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찬사는 Fw 190이 얼마나 위력적인 전투기였는지를 잘 보여주세요.

**Q. Fw 190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겠군요.**

A. 전쟁이 진행되면서 서방 전투기들도 개량을 통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Fw 190을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Fw 190을 개량해 만든 것이 Ta 152입니다. 개량의 핵심은 주익의 가로세로비를 늘려 적

생산하는 데에 그친 것은 두고두고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항공기 설계가로서 인생의 2막을 여셨습니다.**

A. 나치가 연합군에 패하고 독일 과학자들은 소련과 서방국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택한 곳은 아르헨티나였고, 거기서 1950년에 처음 비행한 제트 전투기 IAe 33 풀카(Pulqui II)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IAe 33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와 결함을 안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를 넘친 경제 위기로 결국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쉰이 넘은 나이였지만 항공기 개발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케불프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함께 자국 전투기 개발에 힘을 쏟던 인도로 건너가서 힌두스탄 항공과 함께 HF-24 마루트(Marut)를 개발했습니다. HF-24는 1961년에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자력으로 개발해 비행에 성공한 초음속 제트기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제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공을 만드는 것은 도전과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성공으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넘다른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독일 공군을 뜻하는 말. 현재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Fly News



①

### 일본 혼다 제트기, 올 상반기 출하 세계 1위 등극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가 개발한 소형 제트기 '혼다제트(HondaJet)'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출하 대수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제트는 기체에서부터 엔진까지 전체를 혼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7인승 소형 제트기다. 혼다는 2015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의 부유층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NHK에 따르면 혼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24대를 출하했다. 이는 올 해 상반기 중 10인승 이하 소형 제트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제 소형 제트기 세스나를 앞선 것이다. 세스나의 구체적인 출하 대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70~90석 규모의 중형 제트항공기 MRJ는 개발과 납품이 지연되어 주 고객으로 염두에 뒀던 저가항공사(LCC)의 입지를 등장에서도 불구하고 수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②

### 드론 택배 첫 상용화, 아이슬란드 물류혁명

세계 최초로 지난 8월 23일 아이슬란드에서 드론을 활용한 상용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드론산업의 지구촌 상용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혼다는 2015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의 부유층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NHK에 따르면 혼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24대를 출하했다. 이는 올 해 상반기 중 10인승 이하 소형 제트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제 소형 제트기 세스나를 앞선 것이다. 세스나의 구체적인 출하 대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70~90석 규모의 중형 제트항공기 MRJ는 개발과 납품이 지연되어 주 고객으로 염두에 뒀던 저가항공사(LCC)의 입지를 등장에서도 불구하고 수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③

###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 성능 훨씬 강력해진다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최첨단 화력과 최첨단 성능을 갖추게 된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미 공군의 의뢰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12대의 F-22를 대상으로 한 특수 도료 개량(ICR)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9월 3일(현지시각)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이 작업으로 F-22가 적 레이다에 탐지될 가능성에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장 능력 또한 훨씬 강력해진다.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2019년까지 중거리 AIM-120D '암람'과 조준선 밖 추적기능(HOBS) 교전 능력을 갖춘 단거리 AIM-9X 블록 2 사이드와인더 등 최신형 공대공미사일을 F-22에 장착하기로 했다. F-22의 통신 능력도 보강된다. 지금까지 F-22는 지상 지휘통제센터나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J-STARS)'로부터 표적 정보를 받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량작업 등을 통해 인근을 비행하는 드론으로부터도 관련 정보나 표적 좌표 등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④

### UTC, 록웰콜린스 인수 항공기 부품 공통기업 탄생

미국의 항공기 부품 제작 기업인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 그룹이 항공전자 시스템과 객실 설비 제작업체인 록웰콜린스(Rockwell Collins)를 인수함에 따라 업계의 공통이 탄생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TC는 록웰콜린스를 2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9월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록웰콜린스의 주주들에 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주당 140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이며, 부채 승계를 합치면 인수 금액은 총 300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한다.

UTC는 록웰콜린스를 인수함으로써 기수부터 꼬리날개까지 온갖 항공기 부품의 일괄 생산이 가능한 업계의 최강자로 부상하면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가격 인하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⑤

### 항공기분쟁에서 최종 패배한 에어버스, WTO "보잉사 보조금 합법"

보조금 문제로 수년째 미국 보잉과 다퉆온 유럽 에어버스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빼아온 판정을 받았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9월 4일(현지시각) 지난해 WTO가 내린 결정을 뒤집고 미국 워싱턴 주 정부가 보잉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상소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WTO는 지난해 11월 보잉이 신형 항공기 모델 777X를 개발하면서 미국산 원자재 사용을 전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불공정 거래로 조장 우려가 있는 불법 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⑥

### 보잉, UTC · 록웰 합친 '항공부품 공통 탄생'에 강력 반발

보잉이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 그룹과 록웰콜린스의 합병에 반발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 9월 5일(현지시각) 두 회사의 합병이 발표된 지 수 시간 뒤 성명을 내고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세계 최대의 항공기 부품업체가 등장하는 것이 자사의 이익에 반한 결론을 얻는다면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병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행정 당국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다. 두 회사의 합병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보면 업계의 시각을 더욱 강도 높게 반영한 것이다.

보잉은 성명에서 "구체적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 우리로서는 두 회사의 합병이 우리 고객과 업계에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가치를 증대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이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상의 읍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Fly News



⑦

**'マンハッタン-JFK 5分 만에',  
독일 에어택시 스타트업에 투자자 몰려**

미국 뉴욕 주 맨해튼의 복잡한 도심에서 존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까지 가려면 교통체증을 고려할 때 최소 1~2시간 걸린다. 미 CNN 방송은 지난 9월 5일 “5명의 승객을 태우고 맨해튼-JFK를 연체든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에어택시사업 아이디어가 중국 최대 인터넷 그룹인 텐센트의 시선을 끌었다”며 “독일 전기 비행기 스타트업인 릴리엄의 9,000만 달러(약 1,000억 원) 투자 라운드에서 텐센트가 최대 투자자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출신 청년 4명이 창업한 릴리엄은 지난 4월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2인승 제트기의 시험주행에 성공했다. 현재 70명의 직원이 있는 릴리엄의 다음 목표는 최대 시속 300km로 날 수 있는 5인승 제트기 개발이다. 36개의 엔진으로 구동되는 이 전기 비행기는 배기 가스 배출이 제로로 친환경적이다.

**보잉, “중국 항공기 수요,  
20년간 1조1,000달러”**

앞으로 중국의 20년간 항공기 수요가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의 영향을 받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9월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보잉이 오는 2036년까지의 중국의 항공기 수요가 총 7,240대, 금액으로는 1조1,000억 달러(약 1,2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자국산 항공기에  
자체개발 엔진 탑재**

중국이 개발 중인 중형여객기 C919에 자체 제작 한 엔진을 장착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9월 11일 보도했다. 버그통신은 보잉이 오는 2036년까지의 중국의 항공기 수요가 총 7,240대, 금액으로는 1조1,000억 달러(약 1,2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오춘샤오(曹春曉)는 최근 한 포럼에서 C919에 장착할 CJ-1000(청장(長江)-1000) 엔진이 개발되어 조만간 해외 수입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CJ-1000은 23%가 티탄합금으로 이루어져 철보다 가볍다고 차오 연구원은 말했다. C919은 지난 5월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지금은 미국의 GE와 프랑스의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진이 50 대 50으로 합자한 CFM인터내셔널이 개발한 LEAP-1C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중국은 CJ-1000 엔진 개발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집중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한 뒤 C919에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또 다른 대형여객기인 C929에 탑재할 CJ-2000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⑧

⑨



26

함께 생각해요  
그들의 재능을 응원하고 보상하라  
REWARD

28

KAI 톡톡  
스스로 이룬 성과로  
받은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30

글로벌 스토리  
모든 보상을  
성과로 결정하는 프로의 세계  
넷플릭스



32

KAI 캠페인  
고마운 동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

## Section 2 하나 된 KAI

일할 맛 나는 회사,

신나는 일터를 꿈꿉니다.

GWP(Great Work Place) 기업문화로

KAI는 하나가 됩니다.

기업이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기업의 리더는 남다르게 인재를 보는 매서운 눈과 그를 잘 코치해 양성하는 일이 중요한 업무다. 다수의 엘리트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엘리트는 성적으로 뽑을 수 있지만 인재는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인재는 어떤 때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까?

글 전미옥 마이스토리 대표

## 그들의 재능을 응원하고 보상하라 REWARD



### 살짝 거리를 두면 객관성이 살아난다

옛날 한 스승이 말이 거칠고 불순하며 행동이 방자한 제자를 갖은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하시였다. 스승은 〈맹자〉를 읽다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칙하다”는 구절을 보고 방법을 바꾸었다. 너는 본래 훌륭한 아이인데 내가 너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꾸중만 한 것 같다고 자책하며 계속 절을 하고 끊임없이 칭찬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제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제발 이제 이러지 마셔요. 스승님 가르침대로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부하나 후배를 탓하기 전에 나의 태도부터 바꾸는 것은 조직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직적 조직문화에 얹지로 끼워 넣으려는 방법으로는 자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부하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한다. 상사나 관리자는 그들과 나의 위치 선정을 다시 하면 분명 다르게 보인다. 직원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조직의 파트너라고 여기고 평등하게 내 옆에 세울 때 그들의 눈은 빛난다. 완성된 결과물을 기준으로 양(근무 시간)이나 질(성과)에 따라 평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도전 기회를 얻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마련해주고 아이디어 제안, 직무순환, 자율적 연구개발, 자식교류 등 참여와 업무 열정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라도 뒷받침한다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며,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평가와 보상을 한다. 철저하게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상사의 주관적인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칭찬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감정을 뺀 객관적인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해준다면 훨씬 의욕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 스스로 고민할 시간과 기회를 주라

부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관리자들은 일을 시킬 때 목적을 확실히 설명한다. 그런데 많은 관리자는 목적이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방법만 설명한다. 심지어는 양식까지 그려준다. **부하직원들이 좌절하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이유와 의미를 모를 때다.** 일을 시켜놓았으면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하든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나친 지시는 간섭으로 들린다. 평범한 사원이 인재로 성장하는 영양제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방법과 절차를 고민하며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에서 찾아진다. 그 기회를 빼앗으면 아무리 재능 있는 직원이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상사가 좋은 관리자다.

과거 산업사회는 한두 명 똑똑한 사람의 지시와 명령으로 조직을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나님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섞거나 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지식통합형 인재, 자신의 전문 분야에 깊은 자식을 가지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업무 능력을 보유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 융합형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한 실학이 다산의 전문성이었다면 이 학문을 통해 현실개혁을 위한 철학·자리·역사·법률·정치·문학·군사 등 다양한 학문적 궤적이 보여주고 있다.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거종기는 실학파의 위민사상을 잘 보여주는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인재는 남다른 면이 보이는 뛰어난 사람에겐 많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액세서리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비전공 특기가 다수 있으면 더욱 좋다. 자기 분야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서나 관심의 대상이 폭넓고 생각이 열려 있는 인재, 한 가지 문제를 수많은 방법으로 풀어가는 인재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빨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조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 재능은 배려 속에 꽂핀다

모 회사에서 길에서 나눠 줄 광고용 전단을 받은 사람이 읽지 않고 받자마자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했다. 한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아예 구겨서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겨서 주면 ‘이거 뭐야?’ 하면서 본능적으로 펴 볼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일을 가르치는 직속 선배는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상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만 답변은 기막히게 창의적이라고 칭찬했다. 앞으로도 눈치 보지 말고 새내기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옆에 있어도 후배 양성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상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 기업은 잘되기 어렵다. ‘구겨서 주자’는 말을 듣고 ‘무슨 혀소리야? 장난해?’ 하면서 정색한다면 창의적 인재도 그 재능을 꽂피우기 어렵다. “위험해도 괜찮으니 한번 도전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큰소리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직원의 생각부터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재는 걸러진다.

세계의 기업들은 일도 철저히 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한 인재를 원한다.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업무 이후엔 또 열심히 여가를 즐기고 쉬는 가운데 업무 능률도 오른다고 믿는다. 그들의 업무 열정은 즐겁고 만족스러운 개인 생활이 충전해 준 에너지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직원을 고유의 가치와 능력을 지닌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각자 재능과 경력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애로 사항을 들어주거나 섬세한 맞춤 케어를 한다면 더 힘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찍 출근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의 경향에 맞게 업무 시간 외 직원의 여가에도 관심을 두고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열심히 일한 재능 있는 직원에 대한 가장 큰 격려일 것이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 스스로 이룬 성과로 받은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 그 선물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후 얻어지는 승리의 보상. 우리가 훌린 땀방울만큼 성과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기체공정관리팀 김재한 사원

### 영어 실력도 늘고 인정도 받고 1석 2조

최근 국제공인외국어회화시험(OPIc)에 응시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점수를 회사에 제출해 영어 1등급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사회공헌팀 배진영 과장

### 한 번에 논문 통과~

육아 휴직 중에 아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대학원 석사 논문을 작성했어요. 그 논문이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공부와 아이 돌보는 일을 병행해 힘들었지만 논문 통과는 저에게 큰 보상이었습니다.

KFX체계종합팀 이명수 책임연구원

### 딸의 대학 합격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딸의 대학 학번은 그동안 수험생의 가족으로서 함께 노력한 각고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시간 고생한 딸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구조사업관리팀 김유나 사원

### 한 단계 더 성장한 나

프로젝트관리전문가 PMP 자격증을 취득하니 전문가가 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이 일로 사업 관리를 전문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성전자팀 정용진 전문기술원

### 이제 나도 요리사~

사람이 살아가는 데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픈 칼질에 손도 많이 베였지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식조리사와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낸 저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공헌팀 박경우 차장

### 마음이 따스해지는 봉사

나눔봉사단의 소중한 자원봉사와 기증식이 끝나면 뿌듯함이 조금씩 밀려옵니다. 도움을 받는 아동과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일의 보상은 마음으로 오가는 감사함이겠지요.

조립검사팀 정수홍 전문기술원

### 중단 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극복하다

창피하지만 처음 팔굽혀펴기를 10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Bar를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100회 연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맨바닥에서 하는 것이 Bar를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쉽습니다. 꾸준하게 운동한 덕분에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젊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KAI 톡톡은 GWP 기업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http://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11월호

- 주제 : 나누고 배울 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Caring
- 질문 : 타인을 대할 때 나만의 배려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모든 보상을 성과로 결정하는 프로의 세계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

탁월한 성과에는 업계 최고의 보수로 보상하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기업문화를 가진 넷플릭스에서는 직원들에게 무한대의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다. '회사 이익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규율에 맞게 알아서 일하고, 휴가를 떠나고, 비용을 쓰면 된다.

글 채희숙 일러스트 레모

## 탁월한 성과에는 최고의 보수로 보상한다

2009년 인터넷을 통해 공유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 슬라이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평가되며 지금까지 스트트업의 교과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Values are what we Value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
- High Performance (탁월한 성과)
- Freedom & Responsibility (자유와 책임)
- Context, not Control (통제가 아닌 맥락)
- Highly Aligned, Loosely Coupled  
(강하게 연합되고 느슨하게 짹지어진 조직)
- Pay Top of Market (업계 최고의 보수)
- Promotions & Development (승진과 자기계발)

요약하자면,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과 해고가 이루어지고, 탁월한 성과에는 최고의 보수로 보상하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내용이다. 성과를 내는 과정에는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다. 업무 시간도, 휴가도, 업무비 지출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넷플릭스의 이익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규율에 맞게 알아서 일하고, 쉬고, 쓰면 된다. 좋은 성과를 낸 직원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연봉이 인상되고, 열심히 일했다라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두둑한 퇴직금과 함께 퇴사를 권유받는다.

위의 슬라이드를 만든 인사담당 임원 패티 맥코드는 기업의 전략 변화(DVD 렌탈 사업의 스피너프)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지원한 책임을 물어 해고당했다. 자신이 만든 인재정책에 의해 회사를 떠나는 기업문화는 냉혹하고 비정해 보인다. 하지만 창업자이며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Wilmot Reed Hastings)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팀이지 가족이 아니다."

"절차적인 일은 아무리 잘해도 2배 정도의 성과를 내지만, 창의적인 일은 잘하면 10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는 직원들이 소풍 나온 아이들이 아닌 프로 스포츠팀의 일원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 NETFLIX

## 빅데이터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이 경쟁력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1997년 인터넷으로 주문 받은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사업을 확장,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기, DVD 플레이어 등 100여 개의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급성장했다.

저렴한 가격과 고화질이 강점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쟁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시네마치'다. 회원 가입 시 좋아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을 3개 선택하고, 시청한 영상에는 만족도에 따라 별점을 매기게 한 뒤 이 정보를 분석해 회원의 취향에 맞춘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해준다.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회원 정보가 더 많이 쌓여 추천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 시스템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적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넷플릭스는 시네마치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넷플릭스 프라이즈' 대회를 개최하고, 딥러닝을 접목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 결과 넷플릭스에서 소비되는 콘텐츠 중 75%는 시네마치가 추천해준 작품이다.

2012년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시청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들이 원하는 연출 스타일이나 좋아할 만한 배우 등을 섭외해 만든 첫 작품이 TV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다. 시청자 85%가 만족한 이 시리즈가 에미상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대중 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넷플릭스는 성공적인 콘텐츠 생산자가 되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오리지널로 거대 방송사 및 케이블TV, 영화사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넷플릭스의 2016년 매출액은 88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190여 개국에서 1억 명 넘는 회원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기는 중이고, 올해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에 6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참고로 경쟁사 아마존의 올해 예산은 45억 달러다.

## 전 직원이 역대 연봉, 매년 하위 20%는 해고

넷플릭스의 평균 연봉은 25만 달러가 넘는다. 전 직원이 역대 연봉을 받는 것이다. 반면 매년 하위 성과자 20%는 해고된다. DVD 대여에서 온라인 스트리밍과 콘텐츠 제작으로, 크고 작은 난관을 이기고 시장 변화에 맞춰 기업의 성격을 바꿀 수 있었던 저력을 이처럼 냉정한 인재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넷플릭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아마존, 구글,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과 애플도 자체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어 이제 자체 콘텐츠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력을 넘어 필수 요건이 되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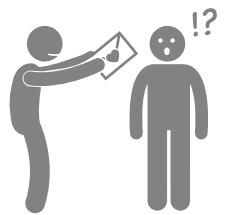
넷플릭스가 만드는 콘텐츠 대부분이 방송사나 영화관을 통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 <옥자>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아 놓고도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는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영화 업계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도 과제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주요 콘텐츠 공급처였던 월트디즈니가 2019년부터 독자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서겠다며 넷플릭스와의 결별을 예고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슈퍼히어로 영역의 강자인 만화 출판사 밀라월드를 인수하고, 월트디즈니 계열사인 ABC스튜디오의 유명 프로듀서 손다 라임스를 스카우트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손다 라임스는 자신의 제작사인 손다랜드를 통해 <그레이 아나토미>와 <스캔들>, <범죄의 재구성> 등 인기 드라마를 제작해왔다.

넷플릭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한 콘텐츠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동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스트리밍 시장 1등 자리를 지키면서 제작 시장에서도 파라마운트피쳐스나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서 될지, 아니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제3의 길을 선택할지, 최고 연봉을 받는 프로 직원들의 초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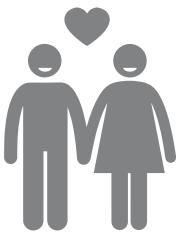
동료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진심을 담은 글로  
마음 표현하기



업무로 힘든  
동료의 일에 공감해주기



솔로인 동료에게  
미팅 주선하기



평범한 날 갑작스러운  
선물로 웃음 주기



고마울 때 빠르게  
고맙다고 표현하기



34

사회공헌  
생각의 폭을,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다



38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스트레스가 원가요?  
일상이 흥겨움으로 가득해진다



40

나의 여행 이야기  
지유로움이 살아 숨 쉬는  
바르셀로나



44

세대공감 KAI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시간



48

문화광장  
문화를 즐기며  
잠시 쉬어기도 좋아요

## Section 3 행복한 KAI

가족은 물론 동료와 이웃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더 행복한 KAI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생각의 폭을,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다

경험을 능가하는 지식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그 경험의 시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9월 한 달간 KAI 나눔봉사단은 여러 사람에게 그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육군 장병과 사천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도서 증정을,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학창단에게는 데뷔 무대를 마련해 주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왔다.



사회공헌①

진중문고에 도서 기증

# 군 장병, 책을 만나다

KAI가 항공기 운용기지 장병들의 정신 건강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장병들이 좋아하는 책을 진중문고에 기증했다. 지금껏 육군 10개 기지의 진중문고 후원을 완료했으며 그 대표로 9월 20일 영천 지역 육군기지인 육군 21항공단에서 기증식을 열었다.

기증식에 참석한 CS본부 회전익고객지원팀 손성민 팀장은 “장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서를 선정해 기증함으로써 장병들이 독서를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 너무 해보하다!”라고 말했다.

진중문고를 기증받은 부대장들은 “장병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를 바탕으로 독서 토론회, 독후감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병사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영위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별히 나눔봉사단과 함께 기증식에 참석한 육군21향공단의 전승원 대대장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병영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독서를 매개로 병사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KAI는 공군 17개 기지를 대상으로 장병들이 선정한 도서 약 200권과 책장을 함께 각 기지에 후원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 기증은 국가방위 증

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다. 2016년부터 장병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체력 용품을 후원해 장병들이 기지 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바 있다.

# 사회공헌② 과학도서 기증 책으로 희망을 선물하다

나눔봉사단은 사내카페 'KAI 라운지'의 매출액 10%로  
구성한 기부 성금으로 구매한 과학도서 1,400여 권을  
사천교육지원청에 기부했다. 기증식은 9월 18일 사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다. 기증식에서는 사천교육지원  
청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책들  
은 사천 지역의 중·고등학교 20개에 배부될 예정이며  
교단 약 100권이 과학도서가 기증된다.

학도서 기증은 이공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도록 도와 국가적으로 과학 발전에 힘을 쓸고 싶은 KAI의 사람이 담겼다.

이종식에 참석한 사천교육지원청장은 “사천 지역 학교 학생들의 꿈을 위해 너무나 좋은 물품을 후원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눔봉사단이 사천 관내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남고등학교 김미지 선생님의 강사 평지

38 | Page

**사회공헌③**

KAI 나눔봉사단이 창단을 지원한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정식 데뷔!

**데뷔를 축하합니다**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가 있던 9월 16일 창원 마산야구장. 올 시즌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리즈가 펼쳐진 그날. 현장의 선수보다 더 긴장하고 설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과 KAI 나눔봉사단이다. 올 3월 창단한 합창단이 공식 데뷔한 이 현장은 감동, 설렘, 긴장, 기특함 등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

글 이효정 사진 정우철

**설레다. 처음은 언제나**

정갈한 흰색 재킷, 남색 넥타이와 바지·치마 그리고 검정 구두. 멀끔한 복장의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20명이 마산야구장 앞에서 재잘거린다. 긴장한 기색이 하나 없는 아이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노래할 합창단을 위해 KAI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찾아왔다.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담아 달라고 소리치며 마냥 즐거워한다. 의외로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은 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선생님과 나눔봉사단원.

경기에 앞서 출구로 이동하는 내내 아이들은 여전히 부산스럽다. 합창단의 지휘를 맡은 이정실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라 알토, 소프라노 파트로 줄을 나눠 설 때까지도 합창단원들은 재잘거리기 바쁘다. 갑자기 박수와 함께 들리는 소리, “선생님.” 뒤이어 들리는 소리, “보세요.” 일순간 조용해진 아이들,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없다.

“자, 이제 연습해보자.” 지휘자 선생님이 먼저 첫 음을 잡는다. 이어지는 노랫소리.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야구장에서 부르기로 한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남에게 뒤질세라 병아리 같던 입이 한없이 커진다.

오후 5시. 노래를 부를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는 실전이다. 아이들은 서둘러 운동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긴다.

**맛보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남짓. 야구장의 사정으로 인해 MR 없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합창단원의 목소리가 마산야구장에 울려 퍼진다. 합창단원의 얼굴이 전광판에 비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끝이 나자 야구장 가득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퍼진다. 관람객들은 어린아이들의 데뷔 무대에 힘찬 박수로 응답해준다. 손을 흔들며 뛰어가는 아이들의 얼굴이 한층 밝다. “속이 후련해요.” “떨렸어요.” “생방송이래요. 제가 TV에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봤을까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흥분한 아이들은 소감을 말하기 정신 없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감동하는 사람은 선생님들과 나눔봉사단원. 사실 이 데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었다.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당일까지 경기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 합창단의 첫 무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을까.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제 야구 관람 시간. 나눔봉사단은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외에도 사천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아동 등 총 15명의 아이에게 야구 관람 기회를 줬다. 나눔봉사단이 제공한 유니폼, NC 다이노스 응원용 도구 다이노스틱, 간식 등으로 야구 관람의 즐거움이 더해진다. 합창단원들은 자신이 데뷔했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체 야구 경기 관람에 정신을 빼앗긴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을 놓고 야구 경기에 빠져든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말하는 아동센터 선생님과 나눔봉사단. “KAI, 파이팅”라고 외친 민수원기혁신T/F 구교진 차장의 말처럼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과 KAI 모두가 첫 시작의 설렘과 긴장을 잊지 말고 ‘파이팅’해주길 바란다.



KAI 나눔봉사단 사무국장  
구관혁 실장

“많은 사람 앞에서,  
그라운드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져 나갈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자긍심과 멋진 인재로 자라겠다는  
바람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 하늘사랑 어린이 합창단  
이정실 지휘자

“아쉽게도 야구장  
사정으로 MR를 틀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노래한 단원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창대지역아동센터  
김동현 센터장

“아이들 모습이  
전광판에 나올 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감동,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연습한 야구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처럼 아이들도 꾸준히 연습해  
실력을 키워 세상이란 필드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KAI 풍물동호회 민예

## 스트레스가 뭔가요? 일상이 흥겨움으로 가득해진다



신나게 연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머물 틈이 없다. 매일 모여 북, 장구, 징, 팽과리를 두들기는 순간, 스트레스 해소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풍물을 통해 일상이 흥겨움으로 가득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잠시 잠깐의 연주에서도 신명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할 만큼 풍물에 끓 빠진 사람들. 꾸준히 닦아온 기량은 어느새 프로급이라 나눔봉사단과 함께 펼치는 봉사활동에서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즐거운 무대를 관객과 공유하며 재능기부까지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뿐만한 수는 없다.

글 체의병 사진 정우철

### KAI 풍물동호회 민예(民藝)

설립연도 : 1996년  
인원 : 34명  
모임 : 매일 점심시간 30분,  
매주 수요일 일과 후 2시간  
활동 내용 : 풍물 연습과 정기 봉사 공연  
(나눔봉사단과 함께하는 봉사 공연 포함)



###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비법

쿵쿵쿵~ 풍물동호회 민예의 방문 앞에 서니 북소리가 신명 나게 들려오고, 문을 열자 북 소리가 쏟아지듯 터져 나온다. 방음이 되어 있어서 문밖에서는 미처 그 열기를 짐작하지 못했던 것, 동호회방은 이미 흥겨움으로 가득하다.

매일 점심시간과 매주 수요일 일과가 끝나고 모여 풍물을 즐기는 사람들, 북채를 잡은 손은 아무지고 어깨는 저절로 등실거린다. 온몸으로 연주하듯 리듬과 박자, 음의 고저에 따라 몸짓도 표정도 달라지며 모두가 혼연일체가 된 듯, 공기까지 들썩여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동호회 회장을 맡은 기체협력팀 남한수 부장은 북을 두들기는 풍물 연습이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연습할 뿐 아니라 매일 점심시간에 도 모입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들은 식사하러 갈 때 우리는 동호회방에 모여 신나게 놉니다. 한참 북 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점심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죠. 30분 연습 후 식당에 가면 사람이 많이 빠져서 밥도 여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좋습니다.”

풍물동호회를 하다 보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발사체TF팀 손덕준 조장은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4년 전 풍물동호회에 들어온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말하며 웃는다. 자재관리팀 김종술 수석 역시 “큰 병을 앓았는



데, 동호회 활동을 하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풍물을 하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 국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딸 이야기가 나오자, 회원들 모두 자신의 딸인듯 함께 자랑해주며 한마디씩 덧붙인다. 서로의 가족사까지 궤뚫고 챙기는 돈독한 사이임을 알 수 있었다.

### 공연으로 펼치는 재능기부

풍물동호회 민예가 창립된 해가 1996년이니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셈이다. 동호회의 창립멤버이자 국악교육지도사이기도 한 기체생산1팀 이기범 부장은 그 오랜 시간 풍물동호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왔다. “풍물과 사물놀이 분야도 알면 알수록 다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판굿, 사물놀이, 실장구, 난타, 모듬북, 대북, 퓨전 등 각각의 매력을 살려 연주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연습을 해온 덕분에 회원들은 이제 단순히 취미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 프로급이라 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노동문화경연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받을 만큼 인정도 받았다. 회원들은 그 실력을 스스로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연을 통해 재능기부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나눔봉사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복지원을 방문하고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연도 펼친다. 공연장에서 만큼은 아이들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는 회원들. 공연을 즐긴 할머니들이 사진을 함께 찍기 위해 기다리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던 분들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그 순간을 함께 즐긴다며 공연장 분위기를 전한다.

상생계약팀 이민행 부장은 공연을 하며 뿐만 아니라 순간을 회상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공연을 보면서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흥에 빠져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풍물을 즐기며 그 가치를 실감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좋은 풍물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 ‘스트레스 해소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에서부터 ‘집안 잔치에 무료 공연을 약속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며 신입 회원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풍물동호회 민예의 문을 두들겨보자.





스페인 건축의 대가 가우디가 설계한 구엘공원.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 밀라.

© Shutterstock.com

© Shutterstock.com

최종조립생산팀6직 김형래 주임기술원이  
추천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기

## 자유로움이 살아 숨 쉬는 바르셀로나

우리 부부는 비수기 여행을 즐깁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조금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유와 열정을 느낄 수 있던 여행이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시 가고 싶은 바르셀로나 여행기를 풀어봅니다.

글 최종조립생산팀6직 김형래 주임기술원

### 1일, 먹고 놀고 맛보고 즐기고

4월의 스페인 날씨는 맑고 상쾌해 여행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버스가 수시로 운행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기간에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두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미리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조금은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식으로 한식이 나온다는 것도 매력 중 하나지요.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 아니겠습니까? 여행하는 기간 내내 한식으로 아침을 든든하게 쟁겨 먹은 덕분에 관광지 곳곳을 걸어다닐 체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리해둔 근처 음식점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페인에서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음식은 파エ야(Paella), 타파스(Tapas), 하몽(Jamon)&멜론, 추로스(Churros), 김밥(Gambas)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찾아둔 식당 중 타파스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기 전에는 타파스가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타파스는 특정 음식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식전에 술과 함께 곁들여 먹는 간단한 소량의 음식이었습니다. 바(Bar) 형식으로 된 레스토랑에는 아주 많은 음식이 진열되어 있고, 바에 서 있는 요리사는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곳에 앉은 후 음식을 고르면서 상그리아(Sangria)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상그리아는 레드와인에 과일이나 과즙, 소다수를 섞어 차갑게 마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술입니다. 과일로 인해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이 더해진 상그리아와 함께 먹는 타파스는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신선하기까지 했고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맛이 어우러진 저녁은 즐겁고 로맨틱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사 후 주변을 산책하면서 버스정류장, 슈퍼마켓, ATM 위치를 파악하고 근처의 공원에서 붉은 석양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스페인의 건물과 어우러져 지금까지 본 노을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 2일, 무조건 권하는 가우디 투어

두 번째 날의 시작은 가우디 투어로 결정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곳곳에는 천재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1852~1926년)가 남긴 건축물이 있어 도시 전체가 그의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우디 투어는 스페인 여행을 계획한 대다수 사람이 참여 여부를 고민합니다. 그냥 봐도 좋은 건축물을 꼭 투어를 통해서 할지 우리 역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보는 거 자세한 설명과 함께하면 좋을 듯해서 예약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만족. 가우디 건축물에 담긴 의미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가우디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건축을 하나하나가 더 가슴에 와 달고, 감동이 커졌습니다. 투어 중간중간 로컬 가이드가 추천하는 맛집과 쇼핑의 꿀팁도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투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행 첫날이나 다른 날이라 바르셀로나의 지리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어 중에는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이때 가이드가 노래를 들어준 덕에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스페인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인 티비다보에서 김형래 주임 부부의 모습.

떠오릅니다. 아내는 김동률의 <출발>을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닌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동안 그 노래만 들으며 그날의 감동을 곱씹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방문하는 사우들도 꼭 한번 참여하길 권해봅니다.

가우디 건축물이 모두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건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ília)입니다. 천주교 신자인지라 이번 여행 중에 가장 기대했던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성당을 마주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설하던 중 가우디는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현재 그의 제자들이 이를 이어서 진행 중입니다. 가우디 서거한 100주기가 되는 2026년에 이를 기념해 완공할 예정이라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완공되면 다시 바르셀로나에 오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다 완성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감동적일까요? 기대됩니다.

#### 3일, 현지 삶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숙소 근처의 보케리아(Boqueria) 시장을 3일째 되는 날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를 더 잘 알고 싶다면 시장을 가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는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여행객이 조금이나마 현지인들의 삶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시장에는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먹고 싶었던 하몽을 싸게 샀습니다. 여행 전에 본 TV 프로그램에서 하몽과 멜론을 함께 먹으면 풍미가 배가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짭짤

한 하몽과 달콤한 멜론이 합쳐져 단짠단짠한 맛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고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먹고 싶은 스페인 음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 주저 없이 하몽과 멜론을 고를 것입니다.

보케리아 시장을 둘러본 후 바르셀로나의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티비다보(Tibidabo)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동산이며 동시에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장소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전망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씨, 높은 하늘, 아름다운 전경, 푸른 바다, 클래식한 놀이기구의 조화는 완벽했으면 두고두고 떠올릴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근사했던 하루의 마무리는 세계 3대 분수쇼라 칭하는 몬주익(Montjuic) 분수 쇼였습니다. 해 질 녘 시작해 한 시간 반 정도 이어지는 긴 분수쇼는 어둠이 깊어지니 화려한 조명이 더해졌고 가벼운 팝송부터 클래식 음악, 카탈루냐 전통 음악 등에 맞춰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분수쇼 자체도 멋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어울려 흥겹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만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소 관람은 입장료가 없고 선착순으로 가서 좋은 자리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석이 없어 계단 위나 소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 4일, 해변에서는 여유를! 플라멩코 공연에서는 열정을!

마지막 날 아침은 분수쇼가 있었던 에스파냐 광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본 광장 근처가 멋져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낮 풍경 역시 멋있었습니다. 전날 보지 못했던 바르셀로나 투우 경기장이 있어 가보니 아쉽게도 쉬는 날. 투우 경기가 동물 학대 등의 이유로 폐지된 후 이곳은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이곳 전망대에 올라 에스파냐 광장을 감상한 후 내려와 바르셀로네타(Barceloneta) 해변으로 갔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기에 지중해 바다와 햇살을 느끼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4월 초의 바닷물은 차가워 살짝 발만 담



2026년 완공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법



##### 공항버스(Aerobus)

공항 터미널 T1, T2 장소에 따라 운행 간격이 다르지만 약 5분에서 10분 사이로 운행된다. 공항에서 카탈루냐 광장(Plaza de Catalunya)까지 약 35분 소요. 홈페이지([www.aerobusbcn.com](http://www.aerobusbcn.com))를 참고하라.



##### 지하철(Metro)

공항 터미널과 시내를 잇는 9호선으로 이동. 정해놓은 속도에 따라 내리는 역을 확인하면 된다. 5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는 24시간 운영.

티비다보 놀이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에서.



바르셀로나의 재래시장, 보케리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음식을 먹을 때 팀을 한 가지 드리면 음식이 대체로 짠 편이라 소금을 꼭 빼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금을 빼도 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르셀로네타 해변을 떠나기 아쉬웠지만 다시 시내로 돌아온 우리는 플라멩코(Flamenco)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 민요와 향토 무용, 기타 반주 세 가지가 어우러진 민속예술인 플라멩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개성이 강하고 기백이 풍부한 공연이었습니다. 작은 무대가 있는 펍에서 공연을 관람해서 무대와 거리가 가까워 공연자의 표정 하나하나부터 숨소리까지 다 느껴져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하고 힘찬 공연은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재연됩니다. 공연의 막바지에 비 오듯 땀을 흘리는 댄서를 비춘 조명에 흘어진 땀방울을 이 보일 때 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비수기인 텃에 공연장에 관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춤추는 댄서를 보니 그동안 그런 열정을 잊고 살았던 저를 돌아보게 되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4분 5초같이 빠르게 지나간 바르셀로나. 스페인을 알기에는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먹고, 자고, 보고, 직접 부딪히며 느끼고 자유롭게 걷다 길도 잊어보았습니다. 스페인은 자유와 열정이 살아 숨 쉬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꼭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스페인. 열정과 자유를 느끼고 싶은 사우들은 꼭 한번 방문하길 추천합니다.

## 가을의 추억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시간

글 정영아 일러스트 이보라

스무 살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통일호와 비둘기호가 있었습니다. 기억 하기로는 서울에서 비둘기호를 타고 11시간을 달리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지금의 속도에 비하면 참으로 느리고,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느린 시간 덕분에 차창으로 스치는 풍경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생처음 탄 기차가 신기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의 빛깔입니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 즈음을 지날 때 나무 이파리들의 색이 달라졌습니다. 크레

파스로만 보던 진짜 초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산세도 달라졌고, 논과 밭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의 풍경도 달리는 기차 안에서 보는 풍경처럼 시나브로 색을 달리합니다. 파릇파릇하던 연두가 짙은 초록이 되고 한껏 무르익어 울긋불긋 꽃 잔치를 벌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시간, 바로 가을입니다.

### 일렁이던 황금 들녘이 사라지던 날

여름 별을 담백 밤은 들녘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추수를 했습니다. 모내기도 그렇지만 추수 역시 마을 주민들의 품앗이로 이뤄졌습니다. 벼를 베는 기계인 콤바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집이 추수 날짜를 정하고 마을 남자들이 낫으로 벼를 베었습니다. 대개 오전부터 시작한 추수는 서너 시는 되어야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벼를 베는 동안 여자들은 집에서 점심과 새참을 준비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함께 준비하기도 했고, 집집이 돌아가며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섯 살이나 일곱 살 때로 기억합니다. 큰 고무 다라이('대야'보다는 이 표현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에 새참을 준비해서 논에 갈 채비를 하시는 엄마를 즐라서 동생과 함께 새참 일

행에 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벼로 풍성하던 논은 거지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 어른들은 마지막 힘을 내려는 듯 순식간에 새참 거리를 비웠고, 다시 낫을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덕분에 다라이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동생과 저는 주전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서 목이 말랐던 우리는 주전자에 남은 음료를 마셨는데, 그 맛이 아주 달콤했습니다. 한데 이상했습니다. 서서히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동생과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돗가로 달려가 얼굴과 배를 찬물로 행웠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주전자 속에 있던 달콤한 음료수는 집에서 담근 포도주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생애 첫 음주를 한 날이 된 셈이지요. 지금도 어머니가 그날 일을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른들에게도 꽤 인상적 이었나 봅니다.

### 알밤, 고구마… 우리 집 겨울 양식 준비기

가을에는 논뿐만 아니라 온 산하가 풍성했습니다. 그즈음 밭에는 봄에 심은 고구마가 그득했고, 뒷산은 알밤과 도토리 천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삼 남매도 일을 도왔는데, 알밤과 도토리 줍기는 쉬엄쉬엄 산책 겸 놀이로 즐길 수 있었지만, 고구마 캐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구마는 봄에 심을 때도 밭을 갈아 고랑을 내고 비닐을 덮어 사이사이 구멍을 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캘 때는 그보다는 멀 번거롭지만, 일단은 비닐을 걷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정말 귀찮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비닐 제거 작업이 끝나면 호미를 들고 고구마 줄기를 따라 흙을 파는데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자칫 호미로 고구마를 찍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줄줄이 엮여 올라오는 풍성한 고구마를 보면 힘든 마음도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게 거둔 고구마가 나무 궤짝으로 보통 마흔 쪽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겨울 양식이죠. 삶은 고구마에 동치미 한 그릇, 지금이야 낭만적이고 맛있는 풍경이지만, 당시의 저는 참 싫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데 점심으로 매번 고구마가 나오니 반가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 고구마를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뒷산에서 딴 도토리로 만든 묵은 그때나 지금이나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입니다.

### 하늘 가득 만국기가 펼럭이던 날

'가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운동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봄에는 소풍, 가을에는 운동회였죠. 그래서 소풍과 운동회 전날 밤은 쉬이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비가 오면 어찌나 싶어서 도화지에 큰 해 그림을 그려서 마당을 돌며 기도하기도 했으니까요. 봄 소풍과 달리 가을 운동회는 준비할 게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행사는 바로 매스게임이었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 오후 시간은 수업 대신 운동장에서 매스 게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스게임이 운동회의 시작이라면 끝은 박 터트리기였습니다. 콩주머니를 던져서 청군과 백군 중 먼저 박을 터트리는 쪽이 이기는 놀이였는데, 터트린 박에서는 축하 플래카드와 꽃잎이 떨어졌죠. 그 순간의 흥분은 쉬이 표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운동회 하면 가장 기억나는 일은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달리기를 제법 잘했던 전 항

상 400m 계주 때 반 대표였는데, 혹시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져서 지면 어찌나 늘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 순간의 긴장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던 김밥도 운동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추억이죠.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는 태극 모양 김밥, 꼬리 모양 김밥 등 여러 모양의 김밥을 만들어 찬합에 담으셨는데, 그게 어찌나 예쁘던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 가을이 선사하는 나눔

'천고마비(天高馬肥)'라고 했습니다. 가을은 일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하늘도 땅도 한껏 무르익어 온 세상이 그득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해지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선조들은 한해 노고를 축하하는 한가위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단풍이 지고, 추수가 끝난 가을은 산하는 적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니까요. 겨우내 땅을 다지고 봄에 씨앗을 뿌려 더운 여름을 지나 마침내 열매 맺는 가을은 다시 다음 계절을 위해 제 모든 걸 내줍니다. 가을이 선사하는 나눔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이 더욱 고맙습니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 가을의 추억은 무엇이 있나요



40대  
생산관리팀 김선옥 사원

### 해우소가 신기한 아이들

지난해 가을 아이들과 함께 단풍이 절정이었던 전남 순천의 선암사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해우소를 신기해하며 바라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가을에 아이들과 또 가보려고 합니다.

40대  
LRU검사직 김현태 전문기술원

### 가을에 더 생각나는 할머니

어릴 적에는 추석이면 시골집에 내려가곤 했어요. 한 번은 할아버지의 짐자전거로 자전거를 타보겠다고 혼자 논두렁을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무거운 짐자전거를 잘못 조절해 논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로 인해 추수를 앞둔 벼가 다 넘어져서 훈이 날까 봐 무릎이 깨진 것도 모르고 집으로 부리나케 도망 왔었죠. 혼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께서는 호호 불면서 빨간약을 발라주셨어요. 이맘때가 되면 한없이 다정했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20대  
헬기비행제어팀 진혁성 연구원

### 붉게 타오르던 요르단의 가을

5년 전 가을, 한창 세계여행 중이었던 그때의 가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요르단의 붉은 성, 붉은 사막, 붉은 집… 노을마저도 붉게 물들었던 제 생에서 가장 붉은 가을이었습니다.

회전익검사직 우종성 수석기술원

50대

### 코스모스, 풀벌레, 하모니카 유년의 기억

저는 7080시대에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코스모스 꽃을 따서 여고생 친구 머리에  
꽂아주고 풀벌레 소리 가득한 들녘에 앉아  
하모니카 불면서 가을밤을 즐겼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련해집니다.



차세대ERP구축T/F 조인태 차장

40대

### 애마와 떠난 마지막 가을 캠핑

저는 덕후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을 피규어로 사  
모하고, 그들이 나온 영화를 DVD로 보관합니다.

그렇게 모은 영화가 1,200여 편이나 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슈퍼카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침만 흘리는  
차덕후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캠핑 장비를 가득 싣고  
산으로, 바다로 잘 달려준 15년 된 제 애마가  
있었습니다. 한참 캠핑에 빠져 아래 몰래 캠핑 장비를  
사기에 여념 없었던 2014년 가을 어느 날. 이 녀석과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아 가족에게 마지막 캠핑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지리산으로 가을  
캠핑을 떠났습니다. 텐트 옆에 세워두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후 녀석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때 마치 살아 있는 생명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다시 가을이 되었고  
주말 캠핑을 계획하며 짐을 꾸리니 그 가을 우리를  
캠핑장으로 데려다준 그 녀석이 생각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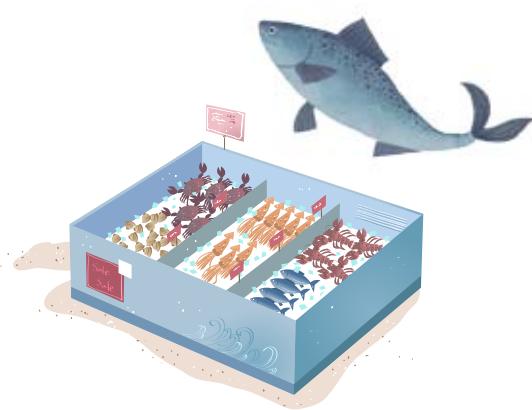


20대  
조립생산팀6직 최지웅 기술원

### 가을에는 역시 전어!

가을 하면 딱 전어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전어 2만 원어치를 사 오신 그날!  
우리네 식구가 식탁에 앉아 고소한 전어를  
푸짐하게 먹으며 즐거워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올가을에도 시장에 전어가 가득하겠지요.  
벌써 군침이 도네요.



'세대공감 KAI'는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http://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11월호

- 주제 : 입시의 추억
- 질문 :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 때 등에 있었던 입시에 얹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CULTURE CALENDAR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 쓸모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도 잠시 쉬어가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 쉼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서 열리는 축제, 전시, 콘서트 등을 소개합니다.

## 문화를 즐기며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



### KAI의 저력을 다시금 새겨본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10월에는 KAI와 밀접한 축제가 하나 열린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리는 축제에는 KAI의 T-50B가 사천 하늘을 수놓는다.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로 블랙이글이 행사 기간 내내 큐피드 화살, 아리랑 음악에 맞춘 태극무늬 등 곡예를 펼칠 예정이다. 또 조종사 플베넷이 이끄는 호주 곡예비행팀 플베넷에어쇼팀(Paul Bennet Airshows)이 초청 공연을 맡았다. 전 세계에 단 3대만 존재하는 Wolf Pro 곡예비행기를 타고 민간곡예비행을 펼친다. 이 공연을 KAI 사우와 가족들이 함께 관람하기 바란다. 또 신입사원들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곡예를 보며 새로운 비행기를 꿈꾸고, T-50B의 곡예를 통해 지난날 선배들이 일군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금 박차 오르는 원동력으로 새기길 희망한다.

이외에도 스피드와 리얼리티가 극대화되는 VR레이싱과 VR바이크 체험,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파일럿 교실, 낙하산 시뮬레이터 체험, 폐낙하산줄을 활용해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10. 1.~15.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성 및 진주 남강 일원	10. 6.~11. 5. 노인과 바다 (연극), 창원 나비아트홀	10. 11. 피아니스트 강현주의 음악으로 그린 그림 III,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	10. 12.~21.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남포동 외	21 10. 21. 거미 콘서트 〈STROKE〉, KBS 창원홀	21 10. 21. 최한울과 함께하는 Fall in Music(색소폰),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10. 13. YOU&I(콘서트),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 볼룸	10. 13. 라 트라비아타(오페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 13.~15. 양산십량문화 축전, 양산종합운동장	10. 13.~11. 26. 코믹뮤지컬 프리즌, 창원아트팩토리	22 10. 24. 혜은이&박강성 콘서트,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2 10. 24. 가을밤의 코러스 (음악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성큰가든
10. 14. 김영인의 소리 孝 대공연, KBS 창원홀	10. 14.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 15. 리차드 막스 로맨틱 콘서트,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10. 15. 맘마미아 콘서트,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3 10. 25. 10. 26.	23 10. 25. 가을밤의 코러스 (음악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성큰가든
				10 12 13 14 15	10 12 13 14 15
10. 17. 모닝콘서트-남성그룹 라 스페란자의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성산아트홀	10. 19. 지휘자 금난새의 베토벤 십포니 사이클 I,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 19.~20. 유도소년(연극), 여수 GS칼텍스 여울마루 대극장	10. 19.~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부산 동래 온천 일원	26 16 17 18 19 20 27 10. 28.	26 16 17 18 19 20 27 10. 28.
10. 20. 최백호&정미조 가을콘서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 20. 무관(별신굿),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0. 20.~11. 5.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경남 합천군 대장경테마파크 외			
					28 10. 28.
					29 10. 28.
					30 10. 28.
					31 10. 28.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상 최대 에어쇼를 관람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당시 KAI가 자랑하는 T-50으로 공군 전투 조종사 8명이 편대를 이룬 블랙이글이 기기묘묘한 재주를 영국 창공에 수놓았습니다. 2관왕을 차지한 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KAI에 비행기를 주문했습니다. 항공기 기술과 운행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린 금자탑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KAI가 담당한 것 같습니다.

김자혜 님(서울시 송파구)

'사회공헌'을 보면서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외국으로 해외봉사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떠난 여정이었지만 그곳에서 되려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는 후기는 제게도 봉사하고픈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보는 'KAI 패밀리'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먼 곳으로 났더군요. 어지간해서는 남부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는 태백이란 곳이 정말 멀게 느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낭만적인 백두대간 협곡열차 여행은 가을이 선뜻 다가선 이 계절에 제 마음을 훈들어놓기 충분했습니다.

이정숙 님(경남 창원시)

흥미로운 주제와 다양한 내용 덕에 9월호가 인상 깊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약간 좋지 못하지만 '표지 에세이'에 희망적인 문구와 내용을 보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더욱 회사가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KAI 특집'에서 다룬 내용은 현재 우리 회사 구성원이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권지훈 주임기술원(성능개선생산팀1팀)

누구나 쉬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것이 봉사입니다. 뜨거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소중한 휴가 기간에 필리핀 학교 짓기 해외 봉사에 참여한 사우 여러분의 밝은 모습과 소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고 온 자랑스러운 KAI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KAI 히스토리'가 일련의 큰 행사 위주로 정리되어 보기 좋습니다. 우리의 항공기 개발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한 권 이상으로 꾸며질 날을 기대합니다.

김승구 책임연구원(전장설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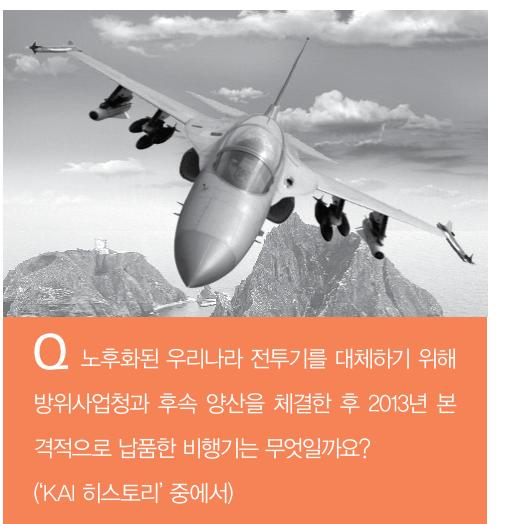
어려운 시기에 'KAI 컬쳐코드'를 통해 '위기의 뒷면은 기회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요'에서 내 일터를 좋아지게 만드는 힘 FRIENDLY를 이야기했더군요.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호감 가는 구성원이 되어 모두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태은 차장(산정지원팀)

## 본부별 사내 기자단

전략기획본부 MRO준비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본부 자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회전의사업관리2팀 정종원 고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개발사업기획팀 김미영 사원 055-851-1578  
고정익개발본부 T-50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팀 노나영 선임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우주사업팀 박용현 사원 055-851-6737  
생산본부 생산기획팀 장재완 부장 055-851-9353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선임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 QUIZ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hybae@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FT

**Fly Together**  
 KAI의 소식을 반응형 웹진에서 만나세요!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KAI의 소식을 반응형 웹진에서 만나세요!

모바일 사보 앱 를 설치하세요

- 안드로이드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홈 화면 추가'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 아이폰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홈 화면 추가'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웹진 이벤트**

휴대폰에 사보 앱을 설치한 후, 10월 호(Vol.214)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나 사진을 캡처해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 상당)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대상 임직원  
신청기간 10. 10.(화)~10. 16.(월)  
신청방법 모바일 사보 화면을 캡처해 기업문화팀  
(배화운 차장 hybae@koreaaero.com)에 성명, 부서명 전송